

목회의 프락



정용영 목사
청동은교회 담임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쁜 아내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우리말 성경 디모데후서 4장 8절)

인생의 경주와 신앙의 여정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승리가 아닌 인내입니다. NASA에서 화성 탐사 로봇 이름을 인내(Perseverance)로 지은 것처럼 신앙인의 여정에는 수많은 장애물과 시련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편 승리의 승자가 아닌 과정 중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달음을

(Hope)으로 이어지는 4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제일스 다이스는 먼저 불투명한 장소에 개발을 위해 5,126번의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고 5,127번째 다이스를 정소기를 만들었습니다.

모소 대나무는 5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지만 땅속에서 수백 미터의 뿌리를 내린 후 6년째부터 하루에 30cm 자라 6주 만에 15m 자라납니다.

인생에 실패와 시련은 나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영적 훈련 과정입니다.

신앙인은 “왜 이런 일이 생겼나”를 묻기보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시는가”를 바라봅니다.

끝까지 버티는 힘!

지키며 일주하는 사람으로 두루되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힘을 가진 성도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다음의 세 가지를 바라봅니다.

1. 상황보다 은혜를 봅니다.(로마서 5:1~2)

가난한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은 거대한 성과 거인(상황)을 보고 낙심했지만 여호수아와 길렘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환난, 아픔, 시련은 일시적(Temporary)이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24시간 7일 내내 지속됩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계속 누려야 합니다.

2. 실패보다 성장을 봅니다.(로마서 5:3~4)

영적 성장을 위해서 환난(Suffering) 인내(Perseverance) 연단(Character) 소망

3. 오늘보다 영원을 봅니다.(로마서 5:5, 히브리서 11:24~27)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성령으로 부여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자 영원한 생명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보좌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고 영원한 상을 바라본 것처럼 오늘의 눈물과 아픔이 인생의 결론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인내는 단순히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성숙 과정입니다.

실자간의 고난을 참으시고 영원한 구원을 얻으신 예수님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상황 대신 은혜를, 실패 대신 성장을, 오늘 대신 영원을 바라보며 끝까지 버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칼럼



이박행 목사
미션리 주필
한국교회성장연구원 대표
건강교회연구소장
광주YMCA선교위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는 약 3000년 전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오늘의 언어로 되살린다.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까지 겪는 방황이 이야기의 중심이다. 거대한 바다와 폭풍, 괴물과 신들의 세계가 펼쳐지지만 영화의 질문은 현실적이다. 문명이란 무엇이며, 무엇으로 유지되고, 왜 무너지는가.

오디세우스는 뛰어난 전략으로 난공불락의 트로이를 무너뜨린 영웅이다. 그러나 승리의 자리에는 불타는 도시와 수많은 죽음, 기복을 잃은 이들의 울음이 남는다. 다른 도시를 정복할 만큼 강한 군대와 기술을 가졌다고 문명이라 부를 수 있는가. 적을 쓰러뜨렸지만 자기인의 폭력과 탐욕을 다스

리지 못한다면 문명의 승리가 아니라 야만의 확대일 수 있다.

영화의 문명론을 이해하는 열쇠는 고대 그리스의 확대법 ‘크세니아’다. 낯선 나그네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고 인정을 보호하되, 손님도 주인이 호의와 집안의 질서를 존중하는 규범이다. 오디세우스가 만나는 세계에서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기준은 군대나 건축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대하는 태도다.

이 정신은 성경의 기르침과 맞닿아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도 애굽에서 나그네

며, 의도인들은 위험 속에서 생명을 돌보았다. 그 주먹밥은 국가가 시민을 보호하지 못한 순간 시민이 시민을 지켜 낸 ‘남도의 크세니아’였다. 전남의 품앗이와 무례, 손님에게 내어 주던 넉넉한 밥상에도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같은 윤리가 흐른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와 사회는 이 정신을 지키고 있는가. 경쟁에서 밀려난 청년과 고립된 노인, 장애인과 이주민이 공동체 밖으로 밀려난다. 교회마저 성공과 성장, 영향력 확대를 앞세워 상처 입은 이웃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정이다. 성경의 회개도 후회해 머물지 않고 삶의 방향을 틀어줘야 하나님과 이웃에게 돌아가는 일이다.

《오디세이》는 교회에 묻는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교회가 돌아갈 곳은 더 큰 권력과 성공의 자리라 아니다. 나그네를 맞아들이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는 복음의 자리다. 문명은 힘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서로를 인간으로 대하는 약속과 화해, 절제와 책임이 문명을 지킨다. 그 길에서 교회는 세상이 잃은 공동체의 희망

《오디세이》가 묻는다, 문명은 무엇으로 살아남는가

있음을 기억하며 이방인을 알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예수님은 “내 돌아가기까지 겪는 방황이 이야기의 중심이다. 거대한 바다와 폭풍, 괴물과 신들의 세계가 펼쳐지지만 영화의 질문은 현실적이다. 문명이란 무엇이며, 무엇으로 유지되고, 왜 무너지는가.”

광주의 오일정전은 현대사 역사가 된 현장이었다. 1980년 5월 시민들은 국가폭력 앞에서도 서로를 버리지 않았다. 부상자를 위해 피를 나누고, 시장 상인들은 주먹밥을 만들어 낯선 시민에게 건넸

었다. 현대사에 한 교회가 낯선 사람에게 높은 문턱이 된다면 화려한 예배당으로도 문명의 길을 제시할 수 없다.

오디세우스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타카의 귀족자들은 그의 집과 재산을 소비하고 페넬로페에게 결혼을 강요한다. 현대를 악용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한 것이다. 영화는 문명이 외부의 적 때문에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공공의 자산을 사적 욕망이 차지하고 약속과 책임이 사라질 때 문명은 안에서부터 무너진다.

오디세우스의 귀환은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을 넘어 잃어버린 관계와 책임,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

을 다시 보여 줄 수 있다.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두상달 칼럼



두상달 장로
가평교회원 이사장

아내 사랑 국제 컨테스트가 열렸다.

3등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차지했다. “of the wife, by the wife, for the wife.”

2등은 케네디 대통령이었다. “아내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가 아니라 내가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대망의 1등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차지했다. 자랑스런 일이다. “나는 아내의 행복을 위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노라.”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다. 집권적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일어난 민족적 경사로 정려상도 붙어 있다.

“나는 아내를 존경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와 “나들이 아내를 알아?”이다.

공로상도 있다. “나에게 아내가 없다는 것은 나를 두 번 죽이는 거야.”

대상은 졸판이 남편이 차지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할 지라도 나는 오늘 설거지 청소장벽을 열심히 하겠노라.”

우리나라 최고의 남편감은? 송태희라고 한다. 90세 넘어서까지 분별이오 팔도장산 특산

품을 다 받아오고 거기에 일주일 에 지방출장으로 2~3일씩이나 집을 비워주기까지 하니 최고라고 한다. 공처가와 애처가는 맞으면서 육백고 사나고 그냥 육백고 사나고의 차이라고 한다. 애처가는 아내에게 사랑을 주는 재미로 살고 공처가는 아내의 눈치를 보는 재미로 산다.

애처가는 자식들이 밤에 귀찮은 걸림돌이 되지만 공처가는 밤

에 자식들이 보호막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다.

아내가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 오늘 아침 내 아내가 나에게 “끼니권”을 나에게 부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때 고맙다고 말했다. 밥 먹여 주겠다는 것이니...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다. 그 끼니권이란 끼니를 때우기 위

한 모든 것들이다. 장보기부터 시작하여 조리취사, 설거지, 청소, 세탁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질겁을 했다. 거절하겠노라 했다.

그랬더니 자기가 50년 동안 담 당했으니 이제부터는 내 몫이라 다. 아내도 나이가 들어가기 힘 든 모양이다. 그러니 분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 하는 수 없이 나는 오늘도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해본다. 애처가여서가 아니다.

50년 전 평평거리며 큰소리치고 살았던 좋은 시절의 그리움이 란 다 절었다. 아니 그러한 추억일랑 전지레인지에 넣고 불리고 불려 부서지고 싹트려 배수 구에 흘려보낸다. 평생같이 살아 온 사람아! 그동안 수고했노라.

이제 취사권만 아니라 장보기도 하고 인마도 해주고 마시지까지도 해주며 이따금 모시고 다닐 테니 구박만 하지마소서.(아내가 크게 웃는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션리 구독 및 광고 문의

T. 062)367-9109 F. 062)367-9108

대한예수교장로회

2026학년도 총회신학 신·편입생 모집

본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인준 정통 보수주의 신학연구원입니다. 정교도적 개혁주의 보수신학의 요람으로서 신학과정을 이수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강의를 중심으로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성실한 길잡이가 되도록 본 총회신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전화
062)511-2491
010-3161-2491
http://www.gchongsin.com

총장 신혜란 목사

과정	모집학과	학제	모집인원	자격
신학부	신학과 (주말반, 야간)	8학기	30명	고졸, 세례받은 자 전문대졸자는 3학년 편입가능
	목회학과 (주말반, 야간)	8학기	20명	세례받은 자, 평신도, 사명자
신학연구원	신학과 (주말반, 야간)	6학기	00명	신학부 졸업 및 졸업 예정자
	목회학과 (주말반, 야간)	6학기	00명	동등학력 소지자
학술원	성경심화과정	2년	00명	목회자, 신대원 졸업자
평신도 성경연구반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체계화함. 4학기(1년) 평신도 지도자 과정 후 신학 과정에 편입할 수 있음			
특선	신대원 졸업자는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에 편입 가능 여목제도 있음			

원서교부 및 접수처

원서교부 : 광주, 전주, 순천 총회신학
원서접수 : 수시 접수
*전형료는 없음

총회신학의 장점

최고의 교수진이 있습니다.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교회개혁 및 설립인허,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문의

광주 062)511-2491
전주 063)272-2491
순천 061)751-2491
수양관(곡성) 061)362-2491